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5 No 1
2023.3.19.

2023 spring 봄

한울 타리

편집: 홍보위원회

Contents

권두언
새해덕담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70주년 기념 사진전
당회 소식
예배 예술 위원회
쉐마 행사 위원회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홍보 위원회
교인 2부 위원회
쉬어가는 코너 1
English/Bilingual Ministry
에스더 여성회
마리아 여성회
권사회
상록회
남선교회
은퇴 장로 기도회
해바라기 유초등부
Ransome 중고등부
집사회
쉬어가는 코너 2

감사하는 눈길

지금도 어릴 때 늘 속히 어른이 되길 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설수 있는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일 줄 압니다. 얼마전 C S Lewis의 글을 접하고는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다시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내려다 보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려다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내려다 보는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학문을 쌓아가는 것도 실제로는 내려다 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늘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려다 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어쩔수 없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수고가 어느덧 내려다 보는 눈길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눈길을 소유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눈길은 올려다 보는 눈길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소 은퇴장로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계묘년’입니다. ‘계’는 하늘의 색 10간중 작년처럼 ‘까만색’이고, ‘묘’는 땅의 12지 동물중 네번째인 ‘토끼’로 ‘까만 토끼띠’해 입니다. 까만색은 ‘흡수력’이 강하고, ‘토끼’는 착하고 단순하며, 재치와 유머가 많아, 적응력과 분별력이 강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토끼띠’에 일어난 우리교회 모습 돌아 볼까요?

12년 전 2011년 ‘신묘년’에는 콜롬비아 단기선교와 탁구 동우회, 서예 동우회 등 은사 공동체 모임, 이웃초청 Oasis Café Music Night 이 시작되었고, 특히 조나연 작곡 Musical ‘Ruth’가 이해원 연출로 멋지게 공연되었습니다.

24년 전 1999년 ‘기묘년’에는 남녀 65세 이상만 회원이 되는 상록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청년 1, 2부에서 부부 청년부가 독립 되었습니다.

36년 전 1987년 ‘정묘년’에는 채위 목사님이 위임하여 1년 전 1986년에 가입한 미국장로교 운영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7년 후 1994년에 본교회 담임목사 첫 은퇴식을 했습니다.

48년 전 1975년 ‘을묘년’에는 장로교 김재준 목사님, 감리교 함성국 목사님, 성결교 김갑동 목사님 등이 설교하던 초교파 교회였습니다. 10월 이곳 브루클라인에서 처음 예배 드릴때 제 마음속에 “이 교회당은 한인교회 것”이라 했는데, 22년 후 1997년 보스턴 노회의 결정으로 보스턴한인교회가 건물소유권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60년 전 1963년 ‘계묘년’에 가진 교회 창립 10주년 예배에서 BU 신학대학장 Walter G Muelder 박사님이 설교했고, Lowell 음대 옥인걸 교수님이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2023년은 교회 창립 70주년으로 여러 특별 행사가 계획된 바쁜 해입니다. 또 우리교회 70년 역사중 가장 오래 28년째 시무하시는 이영길 담임 목사님 70세가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새해 ‘계묘년’에는 지혜의 상징인 ‘까만토끼’처럼 우리 교인 모두가 적응력과 분별력있는 영민한 재미 한인들로서 미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 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심포지움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Symposium

Two Tales of a City upon a Hill: - Unlocking the Past for a Better Future Together: Stories of Native Americans & Korean American Churches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2023. 4.24-26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2023년 4/24-26일, 보스톤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먼저, 미국 땅에 심겨진 한인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심포지움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 땅에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각도로 기독교 선교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Korean-American 들이 1세, 2세, 3세대와 더불어 더 풍성한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땅에서 한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귀한 심포지움이 될 것을 믿으며, 교우님들과 교단 목회자들(KM/EM)과 노회원 등을 초대합니다. 대면과 온라인(via YouTube)으로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심포지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우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첫날 만찬과 둘째날 식사시간에도 참여하실 분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4월 2일부터 등록을 해주시면 준비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SYMPOSIUM
보스톤한인교회 70주년 심포지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마태복음 Matthew 5:14

Unlocking the Past for a Better Future Together

**TWO
TALES
OF A CITY
UPON A HILL**

Stories of Native Americans & Korean American Churches

April 24th - 26th, 2023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KUSA)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www.eventcreate.com/e/kcboston
Contact: kcbweb70@gmail.com
CO- SPONSORS: NCKPC Jubilee Fund,
KPC(Northeastern)

<https://www.eventcreate.com/e/kcboston>

프로그램 소개

심포지움 첫날 오후 5시부터 사진전(“The Mission In Korea”)을 시작으로, 만찬이 5:30분에 있겠고, 오후 7시부터 강연들이 아래와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첫날(24일) 강연:

Session I (오후 7시):

- Elder Elona Street-Stewart (Co-Moderator of the 224th General Assembly (2020)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the synod executive of the Synod of Lakes and Prairies)

Session II (오후 8시):

- Dr, Paul Cha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istory of Korean Protestantism)
주제: “History of American Mission In Korea”

둘째날(25일):

Session III(오전 9시) & Session IV(오후 7시):

- Dr. Jane Hong (Occidental College, A Historian of U. S. Immigr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World)

Session III 주제: “History of U. S. Empire & Exclusion”

Session IV 주제: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History”

SessionV (오후 8시)

- Dr. David Eunil Cho (Boston University, Pastoral Theology and Spiritual Care)
주제: “Practicing Korean American Theology for Such a Time as This”

셋째날(26일): 오전-그룹 토의

이 심포지움을 위해 70주년 행사위원회(위원장: 한문수 장로) 아래 소위원회인 심포지움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심포지움 Co-Chair: 윤경문, 구용한

심포지움 위원회 위원: 김수영, 김승욱, 김영돈, 사공현일, 서정희, 손영권, 양수연, 이석원, 이재익, 이주원,
이지용, 정광근, 채진병, 최학수

보스톤 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Photo Exhibition

His Time His story - A Journey of Faith -

1832년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귀츨라프 선교사를 시작으로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유럽, 미국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왔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씨앗은 다시 이 땅 보스톤으로 날아와 보스톤 한인교회를 세우고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다. 70주년 심포지움과 맞물려 진행될 이번 사진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한국의 복음화 과정을 담게된다. 4월 23일 주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민 1세대에게는 가슴 벅찼던 첫 복음의 감동과 감사, 열정을 소환시키고, 자라나는 2세3세대에게겐 생소하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기에 도움이 될 한국 기독교 역사 교육의 기회이며, 아울러 3세대가 함께 각각의 세대에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인연과 복음에 대한 열정/감사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사진전 위원장: 이혜승

사진전 준비 위원: 강현기, 김한나, 김혜민, 박주은, 윤경문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PHOTOGRAPHY EXHIBITION

보스톤 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

His Time, His story

A JOURNEY OF FAITH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April 23-30, 2023

- 사진전 PART 1. Mission in Korea @ Main Lobby
- 사진전 PART 2. Korean-American-Christians in the US @ Community Hall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LUSA) •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 (617) 739-2663

서서히 그 기운을 잃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와 함께 시작된 새해, 이제 새 소망을 위해 예비하신 길과 문을 활짝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교회에 주신 이 복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 첫 당회에서는 지난 해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맡기셨던 사업을 결산하였고 새해 새 사업을 위해 신,구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당회서기	장양술	교인 2	최현구(신)
재정	김영범	국내선교	안성완(신)
예배예술	박신영	해외선교	이정민
기획 운영	이정규(신)	홍보,역사편찬	이혜승(신)
건물	엄재관	쉐마	장양술
교육 1	박신영	공천	김영범
교육 2	구용한(신)	이사장	이정민
정평환	안성완(신)	회계감사	정광근
교육 3	한문수(신)	노회총대	이혜승,장양술
교인 1	정광근(신)	인사	장양술, 이정민, 한문수,

또한 당회와 공천위원회 추천 재임장로 및 안수 집사, 신임 권사, 안수집사, 서리 집사들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재임 장로,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2월 첫 주 임직하게 하였고 아울러 각 구역 구역장과 성경공부 인도자 분들을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재임 장로: 엄재관, 이정규, 한문수

재임 안수집사: 곽서영, 김태훈, 김은정(A), 김진기, 김준구, 박상철, 박선희, 신준섭, 신보경, 안명훈, 이동화, 이성희, 윤선미, 장보경, 장봉준, 전은영, 정하균, 정영선, 정재원, 진정원, 조유미, 황지현.

신임 서리집사: 김경섭(B), 김지은, 방수영, 서동현, 이정윤, 이환희

성경공부인도자:

2월 첫 주일에 각각 임직 받아 시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탄생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이어준 신앙의 선배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 신앙을 굳건히 이어가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의 악조건 하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심포지움을 필두로 여러 교우분들의 성원과 기도 후원에 힘입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뜻깊은 축제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참여 합시다.

성경공부 반	인도자
베드로	권복태
다니엘	김경희
안드레	박신영
빌립	이지용
요한	방경남
바울	이재익
부부 청년	한문수
홀다	이재익,정광근
강의	이요한 목사
영어	이혜승

1년에 52주, 그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 이렇듯 매주 반복되는 주일예배는 우리 일상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꾀대를 향해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치열하게 삶과 예배를 하나로 묶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벌써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방송팀, 통역팀, 예배위원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신임 서리집사 교육: 1월 29일 (오후 1:20, Parlor), 올해 임직하는 여섯 명의 신임서리집사들 (김경섭, 김지은/방수영, 서동현/이정운, 이환희) 중 감기로 현장참여를 못한 두 명을 제외한 4명이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자기소개와 이영길 목사님의 강의, 예배예술위원장 박신영 장로와 배광현 신임 집사회장의 위원회 소개과 교회생활 안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참여를 못한 두 명의 신임서리집사들은 교육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별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제직으로 섬길 때 좋은 기초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한 부서에 참여해서 봉사하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제직 임직식: 2월 5일 2부예배는 3명의 재임장로, 22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6명의 서리집사들이 임직하는 제직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총회헌법에 근거한 서약을 통해 임직을 받는 분들과 교인들이 섬김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임직식에서는 구역장과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들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가지는 서약문답은 모든 교인들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스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3세대가 서로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6일 에는 “당신이 빛나는 밤에” 에피소드 III. “섬김과 감사”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에 대한 사연과 함께 그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찬양곡을 신청 받아 나누면서 3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앞서, 팬데믹 동안에 새롭게 우리교회에 출석하신 김홍민-최희주-김서준 가정이 2022년 마지막 쉐마의 밤의 촛불을 밝혀 주었고, 쉐마 찬양팀은 팬데믹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찬양팀으로 조인하신 이해민, 홍정표, 박주는 교우님들이 김수영 목사님, 육혜진 집사님, 안성민 형제님과 함께 부르신 “감사함으로, 위대하신 주 그리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일년간 우리교회를 출석하시게 된 새교우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교우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신 11가정의 교우님들을 부청의 이정운/최희주 자매가 재치있고 정결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도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사랑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교회를 함께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쉐마의 밤: “당신이 빛나는 밤에” Ep III. 섬김과 감사 (진행: 강종균/이유진 집사, 감독: 이해승 장로)



누군가 믿 위해 기도하데 + 잘 아릅디와라
- 육혜진, 김지애, 김지연-

그리고 이어진, 모두가 기다리던 “당신이 빛나는 밤에” 에피소드 III. “섬김과 감사”는 강종균/이유진 집사님 부부와 사랑스런 조은이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이끌어 주셨는데요.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을 shout out하는 시간으로 그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찬양과 함께 사연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각 사연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남몰래 섬김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먼저, 유스그룹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Lucy (효경), Lina (리나), Edmund (중서)가 불러준 He knows my name (내이름 아시죠)은 감미로운 음성과 숨막히는 선율로 우리의 가슴을 감동으로 가득차게 해주었고, 이어진 육혜진/김태훈 집사님 가정의 지애 (Grace)와 지인 (Elizabeth)가 엄마와 함께하는 피아노와 비올라,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참 아름다와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손길에서 나오는 정성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과 유초등부 그리고 유스그룹 선생님들의 섬김과 사역이 소개되었고, 송송반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통역팀까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섬김의 손길들이 모두 아름다운 사연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The Choi Trio (최현구 장로님, 재민 Jacob과 재윤 Joseph)가 “주가 일하시네”를 감사와 섬김의 마음을 담아서 패밀리 밴드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교회의 상록회원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신영각 집사님의 사연이 나올 때는 우리들 부모님 뒷모습과 겹치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며 상록회 어른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섬김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움이 가득했던 “섬김과 감사”편 에피소드를 새롭게 영어예배 (English Ministry; EM)을 섬기시는 강상철 장로님, 이해승 장로님, 김승욱 집사님, 그리고 부지형 형제님이 나와서 첫 EM예배에 대한 소감과 조은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땅에서 자라는 영어세대를 섬기시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특순의 마지막으로 남선교회 회장인 김준구 집사님께서 교육2부 위원장인 구용한 장로님께 청소년 6명의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한 과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엘리야에게 엄청난 사역과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우리가 이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쉼마의 밤을 위해 신청곡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섬김의 사연을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을 위해 밤을 새우며 준비하신 강현기 집사님과 박주은 자매님, 또 하나의 멋진 쉼마의 밤을 기획하고 디렉팅하신 이해승 장로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신 쉼마팀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j1uuKhkT00&list=PLi8Mt7yqFnumLnkiiRqGOaSwasLeiZDz5&index=15&t=10186s>

지난 3여년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팬데믹 상황이 정리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본교회 정.평.환에서도 일상의 회복에 맞추어 몇 가지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해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후 친교실에서 혹은 각 부서 모임때 사용했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깜박 잊고 개인컵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고 씻기 편하고 튼튼한 double layer stainless steel컵 50개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여성회 분들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모두 흔쾌히 “Yes”로 답해 주셨습니다. 컵을 씻고 정리하는 등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음에 모두 찬성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관리 위원회/기획 위원회와 협조하여 식수대(Water Fountain)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작년 새로 임직받으신 분들이 식수대 설치를 위해 헌금해 주신 seed money 가 있어서 본교회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식수대 설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수대 설치를 통하여 bottle water 사용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Seed Money를 헌금해주신 분들과 건물 관리 위원회/기획 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ECC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ion을 재발급 받기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교회는 2012년 뉴잉글랜드 한인교회 최초로 ECC certification 을 받았고 계속되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매년 ECC certification을 재발급 받아 왔었으나. 2022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ECC certification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재해 구제 헌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도 7.8의 강한 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역에 발생해 4만 6천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교회에서 2월 19 - 26 일 2주간에 걸쳐서 모금을 진행하여 \$6,475 불을 모금하였습니다. 보내주신 구제헌금은 NCKPC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를 통하여 현지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와 구제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 위원회

이혜승 장로

2023년도 교회 달력을 작년 여름에 주문하여 2022년 12월에 전달받아 교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작년 2022년도 팬데믹 기간동안 총 300부에서 150부를 더 제작 주문하여 벽걸이 달력 250부와 탁상용 달력 200부를 제작하였는데 post pandemic으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제작된 달력이 소진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사순절 묵상집이 많은 교인들의 도움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내용의 책자가 제작되어졌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의 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2부 위원회

최현구 장로

2023년 회기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1월26일(목) 저녁 7시30분에 전위원장인 안성완 장로님의 인도하에 zoom으로 첫 구역장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 섬기게 되신 구역장님들(가나다순 - 강종균 집사, 김옥식 장로, 안세진 집사, 이문영 장로, 정하균 집사) 소개와 인사가 있었고, 각 구역별로 구역모임과 성경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zoom을 이용하여 모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대면모임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많은 교우님들이 예배, 구역모임, 교회행사에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5일 제직임직예배에서 2023년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제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	2023년 구역장	구역	2023년 구역장
북동구역	배광현 집사	남동구역	김연희 집사
북서구역	최현구 장로	남서구역	김옥식 장로
중앙 1구역	양수연 집사	중서 1구역	권복태 장로
중앙 2구역	김경애 권사	중서 2구역	김제성 집사
중앙 3구역	정하균 집사	중서 3구역	강종균 집사
중앙 4구역	안세진 집사	중서 4구역	이문영 장로
중앙 5구역	오형석 교우	영어구역	이혜승 장로

70주년 사진전 SNEAK PREVIEW



사진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 인물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한 PCUSA출신의 선교사이자 조선예수교장로회 1대 총회장으로 대한민국 개신교 장로회의 아버지이다. 한반도에 장로회를 전도한 최초의 목회 선교사이며, 비 개신교인들에게는 연세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인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의 설립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한국식 이름은 원두우인데 이는 그의 Last name을 빠르게 발음한 말로 당시 고종 황제가 직접 지어줬다고 알려진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page 26 에서 확인하세요)

We've finally launched the long-awaited English worship service last October. We have glorious Thanksgiving and Christmas service together and starting January, we have been able to meet twice a month (2nd & 4th Sundays). About 15 members regularly attend the worship service ranged from a toddler to retired Seniors. Rev. David Cho has preached most Sundays while Rev. Yohan Rhee & Rev. Suyoung Kim have spoken to us as well. Our by-weekly online bible study meetings have stayed strong; We will be studying 5th book together starting April and 5-6 members regularly attend the meeting.

In February, we had a great time of having lunch & fellowship among our members and their family after the service. We shared our thoughts & appreciation and prayed that the community would grow in numbers and depth in near future. Our biggest challenge of all would be the pulpit and the leadership since we have a very limited core members/sources organizing the service. We ask the whole KCB community to continue to pray for us and join us whenever you can. No matter what we are going through, our faith journey must go on! God bless you ALL!

English/Bilingual Ministry Task Force Team:

Chair: Sang Kang,

Associate Chair: Heather Lee,

Communication Chair: Seung Kim,

Worship Organizer/Music Director: John Bu

에스더 여성회는 2023년 임원단에 회장 김정연, 유진선, 임진희 집사님 (부회장, 회계, 봉사부 및 기타 모든 일 통합), 문화/친교부장에 서정희, 이한나 집사님 (헌화와 코사지) 그리고 서기에 정혜윤 자매와 함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2023년 에스더의 주요 섬김 계획은 “친교” 입니다.

재밌는 언니/ 안 무서운 언니/ 밥사주는 언니/ 커피 주는 언니/ 놀아주는 언니 컨셉으로 즐겁고 활기차며 부담 없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에스더 여성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공식 행사는 1월에 가졌던 에스더 신년 총회였습니다. 에스더 신년 총회에서는 창단 역사상 최대인원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인원의 만장일치로 변경된 에스더 회칙 사항들은 잘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따분하거나, 낯설고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는 총회이지만, 작년 회장이신 김정연 집사님의 깔끔한 진행과 자매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맛있는 분식, 재밌는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29일 에스더 신년총회>



에스더 여성회는 그 외에도 예배실 헌화, 임직식 코사지, 부활절 헌화 등을 준비하는 봉사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이 아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있다면 에스더 회원으로서 함께 봉사할 수 있으며, 재밌고 활기찬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감춰 두었던 열정과 에너지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 코사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레임과 출판데믹의 설레임을 가지고 마리아 여성회는 출발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대면으로 전환되고 설레임과 조심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복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는 것 처럼 출판데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마음 가득히 부어주시고 저희도 항상 감사함을 외치는 마리아로 2023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3년 1월 21일 마리아 여성회 신년총회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공동회장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진정원, 이소은 집사가 땅콩처럼 두쪽이 하나가 되어 함께 마리아 여성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칙도 변경하여 기존에 회장과 각 부서의 임원이 1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우고 다수가 한 부서장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고 잘하는 부분은 상대에게 배워가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회 임원소개를 드립니다. 부회장에 김연희 집사님, 총무에 김은정 집사님, 회계에 이성희 집사님, 서기에 정유미 집사님, 봉사부장에 곽서영 집사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부 다과가 다시 재개되어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성도들이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2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차차 더 발전해야겠지만 현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성도님들께 봉사하는 마리아 봉사부장님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5일에는 3년 만에 세계기도일예배가 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 들었다”(엡1:15-19) 라는 제목으로 세계 180여개국의 성도들이 올해는 대만 여성들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윤목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함께 전세계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가 됩니다.

3월 26일에는 마리아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임원과 마리아 여성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권사회

회장 김동숙 권사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2023년 저희들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조금은 나이의 무게를 느끼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삶 만큼이나 소중한 남은 삶의 여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려고 택한 저희들과 하나님을 목숨 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을 보스톤 한인교회 어머니들로서 권사회 회원 한분한분 소중함을 느낍니다.

기존 권사회라는 틀 안에 새로이 입주한 저희들은 때로는 지나온 권사회의 역사의 의미를 새기고 때로는 작금의 시대에 맞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권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곧 다가오는 봄을 향해 지금 기지개의 날개를 펴서 2023년을 열심히 날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3장 초중반에 있는 저희들 조금은 삶의 지혜는 쌓였을 수도 있지만 또한 겸손히 배우며 또한 귀는 쫓긋이 세워 듣고 입은 닫고 신중한 말을 할 수 있는 어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조금이나마 그동안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를 갚는 길이다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교인들과도 같이 호흡하며 열심히 살고 또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약 한달밖에 되지 않아 권사회 한분한분의 겨울 이야기를 알수가 없어서 그저 저의 생각과 각오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상록회

회장 이재명 집사

안녕하세요 ~상록회에서는 그간의 추위로 아픈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상구 권사님과 박기춘권사님은 퇴원 후 가료 중이시고, 엄인숙 집사님께서도 회복중이십니다~어서 회복 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번 년도에는 회장 이재명, 총무 윤현자, 고문은 권복태 장로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월에 새배 행사중 새배돈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남선교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설날을 맞아 남선교회 주관 첫 행사로 “세배와 윗놀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긴 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예쁘게 세배를 하고 교회 어르신들이 주신 세뱃돈을 손에 쥐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신임 남선교회 회장으로서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이런 것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남선교회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남선교회는 현재 3월5일 헌신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는 교회 삼촌으로서 헌신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행복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보스톤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모으며 즐거워하는 춘계, 추계 골프대회를 열어, 신앙생활이 버라이어티하게 재밌을 수 있음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장회 (은퇴장로 기도회)

권복태 장로

우리의 영적 성장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하려 함이라” (요 4:35,36)

신앙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 바람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장로가 되었다고 완성된 것도 아니요, 또 은퇴 하였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에는 분명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이나 주위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영향 등 부수적인 역할도 지대합니다.

제가 보스톤한인교회에 첫발을 디뎠을 때는 매주 수십명 씩 새신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항상 북적거렸고 활력이 넘쳤으나, 교인 서로 간의 교제는 상대적으로 소원하여 잠시 서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구역에 편입되고 기관활동에 동참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 소원함을 잊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만난 기쁨은 지금도 나를 그 분들이 간 길을 따르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나를 보스톤한인교회로 인도해 준, 아직도 현역에서 나이를 잊고 봉사하시는 O 장로님, O 장로님들과 지금 이시간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 헌신 하시는 많은 집사님들 -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며나를 주님께 말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4월 저희 부부는 Alaska Cruise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여행 중 배에서 두 Couple 을 만났는데 한 부부는 L.A 에서, 또 한 부부는 Portland, Oregon에서 왔는데 두 가정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믿음이 돈독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기가 투합되어 매일 식사 때 마다 만나고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본인들의 신앙 이야기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감추고 싶은 개인사 및 가정사까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도 서로 카톡방을 열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분이 “여행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 고 물어 왔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바다와 설경, 멋진 산야와 풍성한 음식도 좋았지만 “함께 만난 사람들과 또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렇게 배우고 습득하며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선배들처럼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따르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게 아닐까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제가 보스톤한인교회의 은퇴장로서 이 은장회 모임에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또 은퇴 하였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되거나 거기에 멈춰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청춘) 푸를(청), 봄 (춘) 이라고 말합니다. 봄 처럼 푸르고 싱싱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늙음을 (현동), 겨울 (현), 겨울 (동)이라 말합니다. 겨울 처럼 어둡고 춥다는 뜻이겠지요?

육신은 젊지만 영적으로 현동일 수 있고, 비록 육신은 노쇠해도 마음은 청춘일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늙었다고, 그래서 은장회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바로 현동이고, 나는 여전히 젊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도 여전한 청춘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은장회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목표를 향한 또다른 작은 출발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은장회를 통하여 큰 일 보다는 작은 일, 나타내 보이는 것 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일, 모두가 하는 일 보다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들을 더욱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12/23 은퇴장로 기도회 모임 간증 중에서)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유초등부의 기쁨과 감사 가득했던 복된 겨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해바라기 유초등부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감사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탄 이브 예배 어린이 순서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하얀 눈꽃 송이 설레이듯 어린이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오랜만에 대면으로 올려드리는 성탄 이브 예배 어린이 순서를 위한 찬양과 율동: ‘To Be His Child (초등부), 무슨 일이야? (유년부)’을 박재미 선생님의 인도 하에 열심히 연습하였고 성탄 이브 예배때 어린이들은 모두 하나되어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사랑의 별빛을 수놓았습니다. 12 월 25 일, 성탄절 유초등부 주일 예배 후에는 학부모회에서 준비하여 주신 어린이들 성탄 선물을 깜짝 산타가 등장 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며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12 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복주머니 나눔 사역

새해에도 설날을 맞아 Brookline 관공서 (경찰서, 보건소, 타운홀)에 사랑과 감사, 축복을 나누며 교회와 세상에서 ‘축복의 근원’ 되는 ‘복주머니 나눔 사역’으로 올해 부터는 중고등부와 함께 겨울 용품 및 선물과 카드를 모아 감사와 사랑을 전해 드렸습니다. 경찰서 Chief와 Deputy Superintendent 들이 감사를 전하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봄에 경찰서 Tour 를 시켜주시기로 하였다고 선물을 전달하여 주신 김수영 목사님과 윤경문 목사님께서 소식 전해 주셨고 Brookline Police Department SNS 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도 감사를 표하며 Brookline 타운홀 사무실 벽에는 2 년전 우리 어린이들이 보낸 카드가 아직도 붙어 있었고 너무나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삼세대 설날 잔치, 세배와 윷놀이 순서 참여

구정 설날 주일, 남선교회 주관으로 준비된 삼세대 설날 잔치에서는 삼세대가 친교실에 모여 맛있는 무국을 먹고 한복을 곱게 입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덕담과 세뱃돈과 선물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며 즐거운 윷놀이를 함께 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 예절을 배우며 삼세대가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상록회 어르신들과 권사회 그리고 남선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연합예배

지난 가을 새 학기부터 한 달에 한 번,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학년 친구들이 Teacher's Assistant 가 되어 어린 동생들 사이에 앉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과 헌신, 열심으로 어린이들을 섬겨주시고 매주 각 반 수업을 준비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연합예배 때는 어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모두 하나 되어 온 맘 다해 '하나님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 자랑스러운 Korean American 으로 꽃피우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보스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중고등부

안수민 교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중고등부입니다!

저희는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마음으로 모임을 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주위에 계신 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두가지 섬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2월 초에는 North E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에 매듭팔찌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작은 매듭을 하나하나 만들며, 한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익숙치 않은 만들기를 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Sunflower 학생들과 함께 Brookline Community를 지켜주시는 소방서와 보건소 분들을 위한 복주머니를 만들고 카드를 써서 보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과 2023년의 시작을 감사한 마음,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같이 해서 더욱 더 뜻깊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계획해 주신 최안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 날, 저희는 일찍 모여서 Yankee Swap을 했습니다. 인형, 스웨터, 보드게임 등등을 나누고 뺏으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됐을까요? ^^

설날에는 예배 후 저희 교회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학생은 한복을 입었고, 세배한 모든 학생은 세뱃돈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중순에는 Lock-In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에서 잘 수는 없었지만, 하루종일 함께 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며 개인적인 신앙과 중고등부 전체의 신앙을 키웠습니다. 작은 연극도 계획하고 영화처럼 찍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란한 카메라기법들 속에 평생 기억할 추억도 생겼습니다. Lock-In을 안전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게 섬겨주신 부모님들,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저희의 신앙이 더욱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항상 저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남은 겨울 동안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집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 보스톤한인교회 집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배광현 집사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한문수 고문장로님과 윤병준 고문집사님을 필두로하여 첫 집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답답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회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활동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하였으며, 각 행사에 대한 시기와 절차 및 임원분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나눔을 갖고 희망찬 2023년을 계획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반기 주요활동으로는 4월 봄 대청소, 5월 어린이 주일 행사 계획 및 진행이 있으며 기타 타 부서와 연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1, 2부 예배에 공지가 나갈 예정이며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집사를 대표하는 모임인 만큼, 젊고 역동적인 활동들을 통해,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되고 기쁜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밖으로는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낮은자세로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집사회가 될수 있도록 임원분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8)” 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3년 보스톤한인교회 집사회에 게 주실 은혜와 때와 상황에 맞게 채워주실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총무 - 이지용
서기 - 강현기
건물관리부 - 이주원
의료/봉사부 - 박상철
공홀부 - 심상길
교육부 - 손효정
회계 - 최정규
경조부 - 서정희
홍보부 - 나해서
고문 집사 윤병준
고문 장로 한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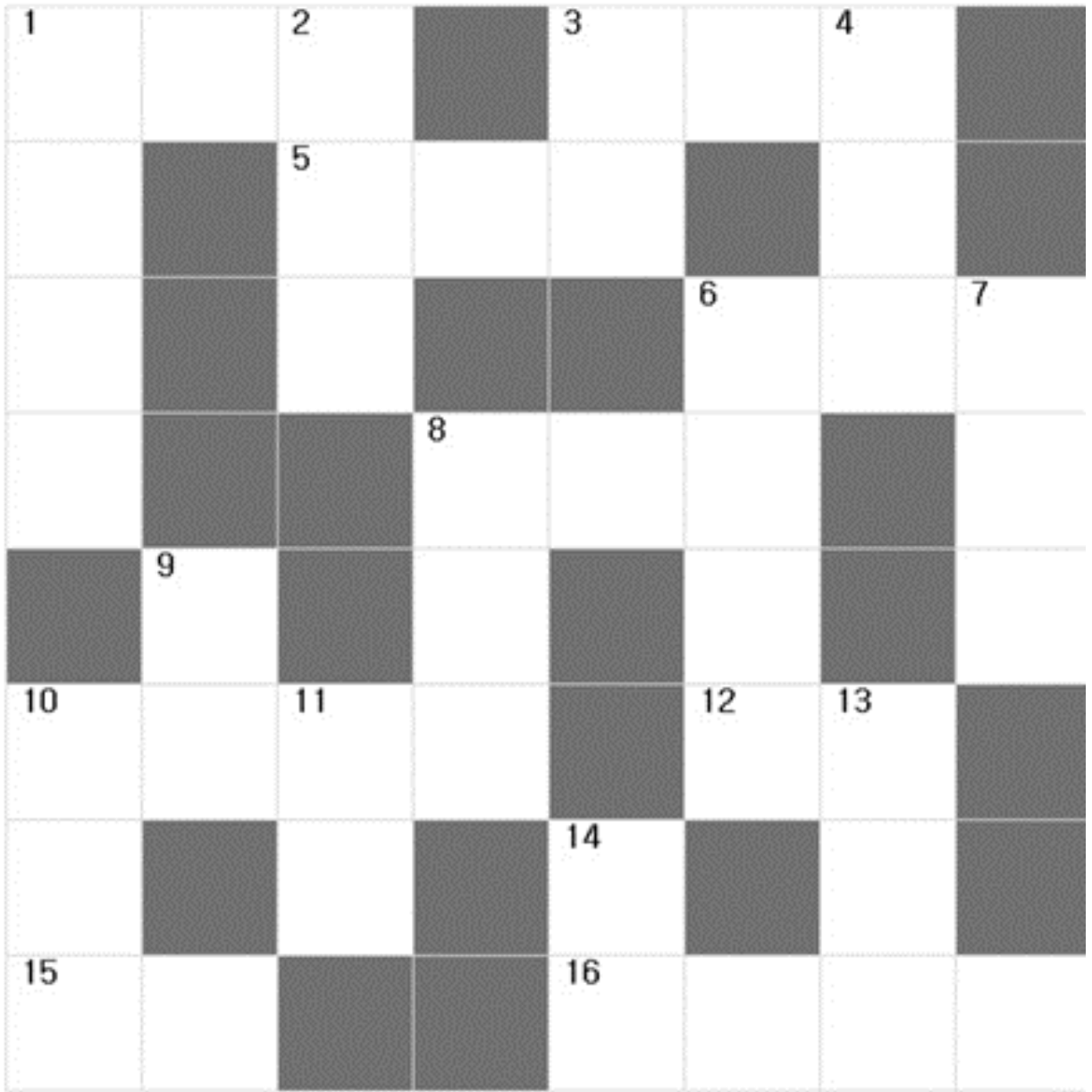
가로세로 성경퍼즐

가로퍼즐

1.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에 의해 연도 되었던 '약속의 땅'입니다. 결국 모세와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만 들어가게 된 땅이죠.
3. 구약에 나오는 여인으로 본명이 하닷사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의 왕후가 되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허만 종리를 지지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를 종리로 세우게 한 여인입니다.
5. 바울이 디도에게 쓴 서신서로 교회의 조직과 감독, 교회 생활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 투명한 물에 탄산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로 콜라와 함께 한국의 대표 음료수입니다.
8. 고대 그리스의 상업 도시로 번창한 항구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의 교회에게 두 개의 서신을 썼는데 전, 후서로 나누어져 있죠. 결혼, 이혼, 성도들간의 분쟁이나 소송,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등 교회의 질서에 관해 다루고 있는 서신을 보냈던 곳입니다. 후서에는 그 지역 성도들의 회개와 약속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신약성경의 78번째 서신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10. 구약에 나오는 인물로 예녹의 아들이며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 969년을 살았다고 하죠(창521-27)
12. 늑대를 영어로 하면?
15.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의식으로 남은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물에 잠겼다 다시 나오는 이 의식은 무엇일까요?
16.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아굴라의 부인으로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여인입니다.

세로퍼즐

1.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지역으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2.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성으로 바울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곳입니다.
4. 아금의 형으로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죠. 덜이 많고 사냥을 좋아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6. 신약의 인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도중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7. 구약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으나 용모가 아름답고 영특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때 방백들과 치리자들이 이 사람을 모략하여 사자굴과 불속에 던졌으나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멀쩡하게 살아 나왔었던 사람이죠.
8. 구약 시대의 지역으로 번영했던 곳이지만 소돔과 함께 율황불로 멸망 받았던 곳이죠.
9. 견과류 중 하나로 딱딱한 견질 안에 고소한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견질이 딱딱해서 망치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썰 수 있는 열매입니다.
10.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으로 허스기야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산당과 배알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겨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아 마지막에는 잔인하게 포로로 끌리하게 되죠.
11. 스스로 찍는 사진, 스마트폰으로 혼자 이것을 많이 찍죠. 셀프카메라의 줄임말입니다.
13. 알자를 영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14. 수영장에서 놀 때 필요한 물건으로 물에 뜨기위해 공기를 넣어서 사용하는 놀이용품입니다.



정답

70주년 사진전 sneak preview - Horace Grant Underwood

가로퍼즐

1-가나안, 3-에스더, 5-디도서, 6-사이다, 8-고린도, 10-므두셀라, 12-울프, 15-세레, 16-브리스가

세로퍼즐

1-가이사라, 2-안디옥, 4-에서, 6-사도바울, 7-다니엘, 8-고모라, 9-호두, 10-므낏세, 11-셀카, 13-프린스, 14-튜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SYMPOSIUM
보스톤 한인교회 70주년 심포지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마태복음 Matthew 5:14

Unlocking the Past for a Better Future Together

TWO TALES OF A CITY UPON A HILL

Stories of Native Americans & Korean American Churches

April 24th - 26th, 2023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www.eventcreate.com/e/keboston
Contact: kcbweb70@gmail.com
CO- SPONSORS: NCKPC Jubilee Fund,
KPC(Northea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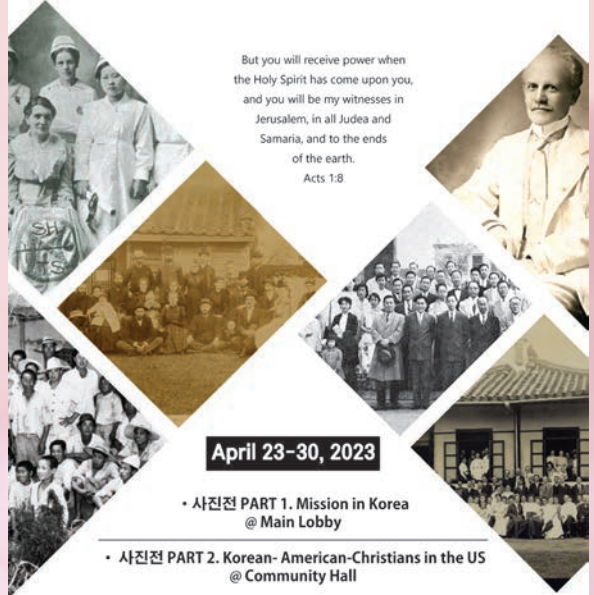
The Korean Church of Boston 70th Anniversary

PHOTOGRAPHY EXHIBITION
보스톤 한인교회 70주년 기념 사진전

His Time, His Story

A JOURNEY OF FAITH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April 23-30, 2023

• 사진전 PART 1. Mission in Korea
@ Main Lobby

• 사진전 PART 2. Korean- American-Christians in the US
@ Community Hall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 (617) 739-2663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영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